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025, Vol.34, No.3, 019-030
https://doi.org/10.7738/JAH.2025.34.3.019

www.kaah.or.kr
pISSN 1598-1142
eISSN 2383-9066

목조 건축문화유산 손상 진단을 위한 용어 표준 체계화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Standard Terms for the Diagnosis of Damage to Wooden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최현서 Choi, Hyeon-Seo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김소현 Kim, So-Hyeon |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윤상 Kim, Yun-Sang*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Received: 2025.02.26. Revised: 2025.04.11. Accepted: 2025.04.25.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increasing damage to national heritage due to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 current use of terms that describe deterioration damage phenomena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and proposes a framework for defining and systematizing these terms. The research found that inconsistencies in the use of terms for the same deterioration damage phenomena and unclear definitions in regular heritage survey and monitoring reports cause confusion in data analysis and accumul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followed ISO 704 and KS standards to understand the relational system of terms, proposing a hierarchical structure with "deterioration damage" as the top concept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 its sub-concepts. Specific terms such as "crack," and the Korean-originated terms "Gallem" and "Apgoe", were analyzed to establish clear definitions and build a system based on their conceptual properties. The study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sure consistency in terminology usage among researchers,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d scientific conservation policies.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developing practical standardization strategies for deterioration damage terminology through in-depth discussions with field experts and conducting long-term national-level studies.

주제어 : 목조 건축문화유산, 손상, 전문용어, 체계화, 표준체계
Keywords : Wooden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Damage deterioration, Technical term, Systematization, Standard Syste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국가유산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3년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리체계 구축”과 “체계적 적응”을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보존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과 기술 연구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손상 현상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절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구축과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문화유산 보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현재 발간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손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보고서마다 다르게 사용되거나, 의미가 미묘하게 다른 개념들이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조사자 간 소통을 방해하고 연구 간 협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COMOS 국제석재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Stone, ISCS)가 발간한 「석재 열화유형 도해 용어집」에서도 석재의 열화와 보존 연구에서 용어상의 혼란은 자연과학자와 보존과학자, 그리고 현장실무자 사이에서 심각한 소통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공통된 용어를 도출하

* Corresponding Author: Kim, Yun-sang,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Republic of Korea. E-mail: ksunys@jbnu.ac.kr

본 연구는 국가유산청 및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2025년도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사업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명: 기후변화 적응관리를 위한 건축문화유산 피해유형별 손상지표 및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및 적용, 과제번호: RS-2024-00398805, 기여율: 100%)

Copyright ©2025 Korea Association for Architectural Histor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terms on which this article has been published allow the posting of the Accepted Manuscript in a repository by the author(s) or with their consent.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1]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용어의 체계화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및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손상을 지칭하는 용어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손상 진단을 위한 용어 정의와 계층 구조화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기초단계의 탐색적 연구로서, 관련 규범을 참고하여 정리한 정의 초안과 계층 구조 틀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향후 표준화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스러기> 시리즈를 집필한 장기인은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므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건축언어도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2] 더불어 이미지를 통한 비교, 정확한 용어 설명, 한글과 외국어의 적절한 사용 등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용어 정의에 있어 이미지 활용과 최근 사용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각 보고서는 유산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를 축적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최근 실무자들의 용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진과 함께 기록된 2023년 발간(2022년 조사)된 세 권의 보고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3]

많은 분야에서 용어 정비 및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의 용어 체계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목조 건축문화유산 분야는 보존과학 용어와 건축, 고고학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용어 체계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2-1. 용어 체계 구축을 위한 고찰

(1) 한국어 어문 규정

한국어 어문 규범(語文規範)[4]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로 일반적인 언어 사용의 표기와 발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 표준안을 마련할 때 어문 규정과 어법에 맞는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표 1].[5]

표 1. 한국어 어문 규범 주요 규정 내용

어문규범	규정 내용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두음법칙, 받침 규정 등 한글 사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 -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 - 한자어의 두음법칙 적용 (예: '락'이 '낙'으로 변환)
표준어 규정	- 표준어와 방언 구분, 단수/복수형 인정 여부, 동의어 및 혼용 표현 정리 - 특정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라도 표준어와 일치하는지 검토 필요 - 의미 변화나 시대적 용례를 반영하여 공식적인 표준어 결정
외래어 표기법	- 외국어 및 한자어의 한글 표기 원칙 제시 - 특정 용어의 음운 변화를 반영하여 표준 표기 결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한국어를 로마자로 변환하는 원칙을 정함 - 표기 방식: 전음적 표기(발음 반영) 원칙 적용 - 고유명사(지명, 인명)는 표준 표기 유지 - 단어 간 띄어쓰기 규정 존재

(2) ISO 용어 표준화

국제적인 전문용어 표준화 노력은 국제전문용어학 정보센터(International Information Centre for Terminology, Infoterm)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산하 기술위원회 TC 37-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 콘텐츠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TC 37의 전문용어 국제표준은 전문용어 지침·표준 작성,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전문용어 작업 실무 등 전문용어 표준화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주요 ISO 국제표준은 [표 2]와 같다.[6]

표 2. 전문용어 표준화 관련 주요 ISO 국제표준(일부 발췌)

표준명	내용
ISO 1087-1 '전문용어 작업 - 어휘 - 1부: 이론 및 응용'	- 전문용어학 및 전문용어 작업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핵심 표준 - ISO TC 37에서 제정한 전문용어 관련 국제표준의 토대가 됨
ISO 704 '전문용어 작업 - 원칙 및 방법론'	- 전문용어의 이론적 모형과 전문용어 작업을 위한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 표준 - 대상과 개념, 명칭의 특성을 기술하고 정의 작성, 개념 관계 서술과 관련된 권고를 제시
ISO 860 '전문용어 작업 - 개념 및 용어의 조화'	- 개념, 개념 체계, 용어의 표준화 및 조화를 위한 업무 흐름 모형을 제시

1) ICOMOS 한국위원회, 『석재 손상유형 도해 용어집(한국위원회 해석판)』, 서울, ICOMOS 한국위원회, 2014.

2) 서명수, 「1990년 전후 장기인 선생의 한국건축용어 정리 및 인식 - 「대한건축학회지」 內 '건축용어의 지스러기' 연속물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4, 241-244쪽.

3) 다 권으로 구성된 보고서의 경우, 용어 사용 패턴과 빈도를 효과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제1권(Ⅰ편)만을 활용하였다.

4)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

5)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 서울, 국립국어원, 2023.

6) 임현경, 「국내 공공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제언」, 『통역과 번역』, 17권, 2호, 2015, 27-49쪽.

(3) 학술 전문용어 정비

학술 전문용어 정비 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 학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국내 40개 분야 학회가 참여하여 학문별 전문용어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분야별 용어 표준화 격차 해소와 표준화 방법론 정비, 학문 간 중복 용어 정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술 전문용어 정비 표준화 방법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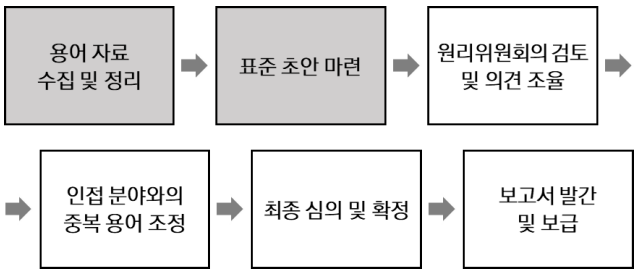


그림 1. 학술 전문용어 정비 표준화 방법 절차

1단계에서는 수집 대상이 되는 세부 분야를 정하고 용어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표본이 될 문서에서 용어를 수집한다. (기존 용어사전, 용어집, 일반사전, 교과서/교재, 정부 간행물, 학회지 및 박사논문의 주제어 등) 2단계는 문제가 발견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심의를 위한 표준 초안을 마련한다.[7)]

(i) 해당 분야에서 여러 용어가 사용되는 것

(ii) 세부 분야 간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

(iii)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이나 일본식 뜻글(간지) 등으로 용어의 변경이 필요한 것

(iv) 다른 분야와 용어가 달리 사용되는 것

(v)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용어

2-2. 문화유산 용어에 관한 고찰

(1) 국제 문화유산 보존 용어 동향

2008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 보존과학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Committe for conservation, ICOM-CC) 제15차 회의에서 「유형 문화유산 보존을 특징짓는 용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ICOM을 통해 광범위한 국제 전문가와 회원, 세계 유산 전문가 커뮤니티, 일반 대중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채택된 보존(Conservaion), 예방적 보존(Preventive) 등의 용어 사용은 유형 문화유산의 보존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들이 포함하는 조치와 행동의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용어별 정의와 함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목조 건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명확한 용어 정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8)]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보존 관련 용어의 혼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형 문화유산의 보존이 다양한 조치와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용어의 정의와 체계화는 필수적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손상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손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보존 조치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손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르게 정의되거나,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용어의 혼용은 문화유산 관리와 보존 조치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목조 건축문화유산 분야에서 손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석재 문화유산의 손상 유형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된 바 있다. 그 중 국제석재과학위원회에서 2008년에 발간한 『석재 열화유형 도해 용어집』이 있다. 용어집에는 일반 용어와 함께, 각 손상유형별로 구분된 용어들을 사례 사진과 함께 정의를 내리고 있다.[9)] 하지만 이는 석재에 한정된 논의이며, 목조 건축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와 구조적 특성을 보인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 용어 정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보존 및 손상 개념 정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문화유산 보존 현장에서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 용어들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기조사 진행에 있어 용어 사용 방식에 대한 표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정기조사에서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관련 용어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 문화유산 보존 용어 동향

1979년 한-영 문화재 용어집을 시작으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속해서 용어 정리와 해설을 수행해왔다. 특히, 문화유산 수리와 개념 정리, 고고학 및 미술사 분야의 전문용어 설명뿐만 아니라, 한·영·중·일 비교 연구를 통한 국제적 표준화까지

7)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권, 2011, 245-283쪽.

8)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Committee for Conservation (ICOM-CC), Terminology to Characterize the Conserva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15th edition, New Delhi:ICOM-CC, 2008.

9) ICOMOS 한국위원회, 『석재 손상유형 도해 용어집(한국위원회 해석판)』, 서울, ICOMOS 한국위원회, 2014.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정책적 차원의 용어 순화안을 제시하고 학술기관이 개념 정리 및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며, 연구기관이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문화유산 용어를 정립하고 체계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용어 관련 간행물

간행물명(발행 연도)	발행	내용
한·영 문화재 용어집(1979)	문화공보부 10)	분야별 용어에 대한 국문 정의와 영문 정의
문화재 기본 용어해설 및 실무 요약(1992, 1997)	한국문화학교 문화재 문화학교	문화유산 수리에 있어 공종별 유의 사항과 기본적 용어해설
문화재 용어 순화안(1999)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용어의 순화안 제안설명과 분야별 순화안 제시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2000)	국가유산청	분야별 어려운 전문용어를 순화하여 뜻풀이, 영문 표기
문화재 기본 용어의 이해(200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 종목별 개념과 부재별 도식
한.영.중.일 고고학 용어 비교집(201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가나다순으로 고고학 관련 용어들을 이미지와 한.영.중.일어로 비교함
한 중 고고학 용어 비교집(202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학 분야 세부 유형별 용어들을 정의하고 중국어와 비교함

국가기관에서는 용어 정보를 더욱 쉽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포털을 통해 용어사전을 제공하여 누구나 웹에서 관련 용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사이트를 통해 문화유산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소속 지방연구소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하는 '국가 유산 지식 이음'에서는 한국고고학사전을 통해 용어 검색이 가능하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문화유산 보존, 고고학,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된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온용어'에서는 학계에서 사용되는 전체 용어집을 제공하며, 기관별 출처를 설정하여 용어 검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용어 정리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에서도 문화유산 관련 용어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문화유산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정기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 모니터링, 보수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제5조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 조사를 시행하되, 균열·변위 등에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종목별로 총괄 사항 및 보존사항 등의 작성 요령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목조건조물의 보존사항은 [표 4]와 같이 부위별 작성 요령을 명시한다. 작성 요령에 기재되어있는 손상에 대한 용어는 구조적 손상과 표면적 손상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구조부를 이루는 각 부재의 재료와 무관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는 조사자별로 현상 기록 과정에서 용어의 혼용이 야기되며 정기조사의 등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신뢰성을 저해한다.

표 4. 국보·보물(건조물) 보존사항_목조

<table>
<tr><th colspan="2">항목</th><th>작성 요령</th></tr>
<tr><td rowspan="2">기단부</td><td>기단</td><td rowspan="9">조사내용에서는 부재/위치/현상 순으로 내용을 기입한다.
현상은 구조적 손상/부재결손 및 표면적 손상/생물피해 순으로 기입한다.
해당 현상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위치 란에 사진 번호를 기입한다.
사진 번호는 부재명과 번호를 같이 기입한다.

구조적 손상 : 파손탈락·균열·이격(벌어짐)·이완·침하·좌굴·뒤틀림·들림·처짐
표면적 손상 : 박리·박락·풍화·마모·파임·지정노출·기단상부마감·배수불량·누수·압괴·들뜸·갈램·할열·변색·이끼류·지의류·초본식물·낙서·조류</td></tr>
<tr><td>초석</td></tr>
<tr><td rowspan="5">축부</td><td>기둥 등 수직재</td></tr>
<tr><td>인방/창방 등</td></tr>
<tr><td>공포</td></tr>
<tr><td>벽체/고막이</td></tr>
<tr><td>구들/마루</td></tr>
<tr><td rowspan="4">지붕부</td><td>창호/난간</td></tr>
<tr><td>지붕 가구재</td></tr>
<tr><td>서까래/부연</td></tr>
<tr><td>지붕/기와</td></tr>
<tr><td colspan="2">천장/닫집</td><td></td></tr>
<tr><td colspan="2">특기사항</td><td>그 밖의 특기사항을 기입한다.</td></tr>
</table>

3. 대상 용어 선정

보고서 내에서는 대상 문화유산에 손상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그를 '기둥 갈램'과 같이 손상이 일어난 부재의 이름과 손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를 함께 기재한다. 결과 및 등급 분류 과정에서도 '균열이 확인되므로 검토 및 조치 필요함'과 같이 손상 현상을 이르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손상 부재와 함께 쓰여 손상을 지칭하는 용어(이하 '손상 용어')를 발췌하여 본 연구에서의 표준용어체계 구축 대상으로 삼았다.

손상 용어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이 특정 현상을 기록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문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어휘와 구분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특정 분야에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고 전문용어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0) 현 문화체육관광부

표 5. 연구 대상 보고서 개요

구분		2022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국보 보물1				2022 중점 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국가민속문화유산 정기조사 연구보고서 I			
발행/조사 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청 / 재) 한국건축문화 정책연구원			
조사 대상 문화 유산 종목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유산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무형	민속	명승		무형	민속	명승		무형	민속
		시도지정유산		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대상 수량	목조	13건				11건				31건			
	석조	23건				15건				1건			
육안계측		○				○				○			
정밀계측						○							
손상 평가		5등급 분류(A~E) 후속 조치 제안				6등급 분류 및 점검(A~F)				중심 건물 기준 6등급 평가(A~F)[11]			

3-1. 보고서 내 용어 발췌

다음 표는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손상 용어만을 대상으로 한 언급 횟수 기록이다. 언급된 손상 용어는 국가지정 건조물 정기조사에서 1,587회, 중점 관리대상 모니터링에서 2,328회, 국가 민속 문화유산 정기조사에서 4,095회로 약 80종류의 손상 용어가 8,010회 언급되었다[표 6].

손상 용어는 목조 건축문화유산 축부의 손상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정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석재의 내용은 제외했다. '균열(14.64%)', '탈락(12.49%)', '갈램(7.26%)', '이격(6.10%)', '변형(5.79%)', '처짐(4.97%)', '파손(4.23%)' 등의 용어가 가장 자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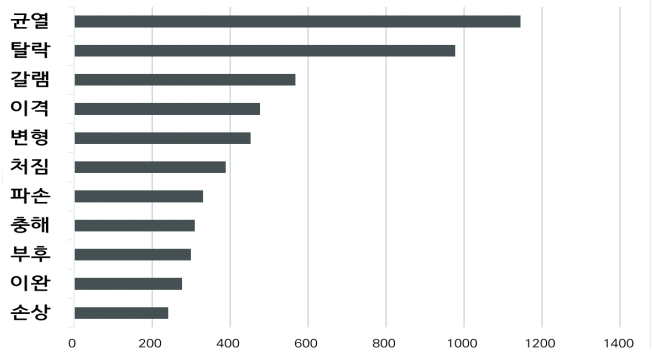


그림 2. 보고서 내 용어 사용 빈도

11) 중심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 하위 등급 건물 기준으로 평가

표 6. 보고서 내 용어 발췌 현황

용어	횟수	용어	횟수	용어	횟수	용어	횟수
갈라-	17	뒤틀림	59	생장	23	철물결실	8
갈라짐	4	들뜸	83	서식	119	축변형	11
갈램	568	들림	12	손상	241	충해	310
결실	11	마모	2	습해	21	충해흔적	67
공동화	2	멸실	2	습해흔	12	침하	183
교란	19	박락	122	썩음	9	탈락	977
균열	1145	박리	40	안쏠림	2	터짐	5
기울어짐	93	배부름	139	압괴	56	퇴락	10
기울음	107	백화	11	열변형	13	퇴색	13
기움	16	벗겨짐	7	열화	4	틀어짐	33
깨짐	10	변색	192	오염	100	파손	331
꺾임	6	변위	147	우그러짐	18	표면 오염균	2
끊어짐	7	변형	453	유실	34	풍화	55
내려앉음	8	보수흔적	1	이격	477	할렬	5
노출	48	부동침하	17	이완	277	할열	2
노후	44	부러짐	19	이탈	102	훼손	82
노후화	4	부식	64	좌굴	16	휨	26
누수	66	부후	300	쪼개짐	7	흘러내림	9
누수흔적	19	분리	10	찢김	7	총합계	8,010
돌아감	20	비틀림	10	처짐	389		
돌출	21	빠짐	27	천공	2		

3-2. 용어 사용상 문제점

앞서 고찰에서 용어 정비에 관한 국제적, 국가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든 용어의 사용은 언어적 규범을 따라야 하며, 효용성 있는 표준 용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적 규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 ISO 704:2022에서는 분야나 주제에 따라 같은 객체를 다르게 보며, 해당 내용은 용어 체계 구축을 위한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술 전문용어 정비를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i) 해당 분야에서 여러 용어가 사용되는 것 ii) 세부 분야 간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문가 심의를 위한 표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2] 이를 참고하여 이 장에서는 손상 용어 내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문화유산 분야 내 용어의 다양성 문제

건축문화유산은 건축 분야이면서도 전통 건축으로서 별도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건축 용어 사전, 한국 건축 용어 사전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며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보존과학 용어나 건축 용어 사전의 정의를 빌려 쓰며 부식, 부후, 압괴 등과 같은 여러 용어

12)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권, 2011, 245-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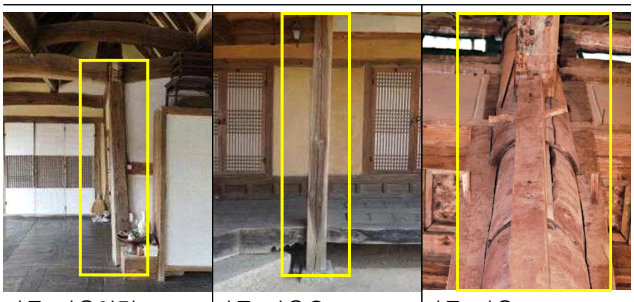
가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 목조 건축문화유산에서는 목재건조학, 목재보존학 용어 등이 함께 쓰이며 할렬, 할열, 윤할과 같은 용어들이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로 인해 보고서에는 손상 용어의 표기나 사용상의 차이가 있다.

기둥 할열 | 기둥 할렬

그림 3. 다양한 분야의 용어 혼용 문제

(2) 어문 규정 미준수와 해석의 문제

전문용어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어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13]이기에 어문 규정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발췌된 단어 중 기울어진 현상을 이르기 위해 '기울어짐', '기울음', '기욺'으로 표기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해당 용어들은 각각 93회, 107회, 16회 사용되며 '기울어짐', '기울음'의 표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기울어짐'은 '기울어지다'의 명사형, '기욺'과 '기움'은 '기울다'의 명사형으로 인식된다. 국립국어원의 상담 사례[14]에 따르면, '기울다'의 명사형은 '기움'이 아닌 '기욺'이 맞다. 이는 '기울다'의 어간 '기울-' 뒤에 어미 '-ㅁ'이 결합하는데 'ㄹ'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ㄴ, -ㄹ, ㅂ, ㅅ, -오 앞) 말이기는 하나 'ㅁ' 앞에서는 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울어짐'과 '기욺'은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적합한 표현이지만, '기울어지다'는 '기울다'에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됨을 나타내는[15] '-어지다'를 결합한 말이므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용어의 어문 규정을 살피고 국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용어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둥 기울어짐 | 기둥 기울음 | 기둥 기욺

그림 4. 어문 규정 미준수와 해석의 문제

13)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권, 2011, 245-283쪽.

14)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2025년 2월 20일 접속.

15) 「언어정보나눔터 온용어」, 『국립국어원』, https://kli.korean.go.kr/term. 2025년 2월 20일 접속.

(3) 단일 개념의 다양한 동의어 문제

균열, 갈램은 모두 목재가 갈라지는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균열은 거북의 등에 있는 무늬처럼 갈라져 터짐, 갈램은 목재가 마르면서 벌어진 틈이다. 사용상에서 균열은 재료와 관계없이 갈라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갈램은 목재가 갈라진 현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목재의 갈라짐을 기록할 때 두 용어 간의 차이점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균열은 일반용어로 인식되어 널리 사용되며, 갈램은 전통 건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목재를 다루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문가 집단의 소통에 사용되는 용어임을 인식하여 용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방 및 창방 균열 | 평방 및 창방 갈램

그림 5. 단일 개념의 다양한 동의어 문제

(4) 동일 용어의 분야별 의미 차이 문제

건축문화유산은 특성에 따라 환경적,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관찰하기 어렵다. 현재 손상 용어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재료에 따라 석재, 목재 분야 용어를 사용하거나 유산이기에 보존과학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손상 용어는 이러한 현상을 외관상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이므로 다른 용어를 빌려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존과학용어집[16]에서는 문화유산 손상 현상으로서 29개 용어를 다루고 있다. 해당 용어 중 부식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금속이 본래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상을 말하며 화학적인 반응을 수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손상 용어 속 부식은 목재의 손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처럼 동일 용어가 다른 분야에서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용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둥 부식 | 판벽 부식

그림 7. 동일 용어의 분야별 의미 차이 문제

16)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보존과학용어집』, 서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1.

4. 표준 용어 체계화 방안

ISO의 언어 규정과 한국적 해석에 관해 앞서 다룬 바 있다. 개념을 개념 체계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만들어진 지식 분야를 유념하는 것과 대상 사용자의 기대와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17] 이에 따라 [표 7]과 같은 규정을 기반으로 분야 특성을 반영해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의 손상 현상을 '객체'로 바라볼 것이며 표현하는 손상 용어를 '명칭'으로서 바라볼 것이다. 명확히 이에 대해 개념 체계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도로서 개념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표 7. KS X ISO 704:2009 전문용어 연구 - 원칙 및 방법

객체	인지되거나 표현되며, 개념으로 추상화되거나 개념화 됨.
개념	객체의 집합을 묘사하거나 객체의 집합과 상응. 명칭 또는 정의에 의해 언어로 기술되거나 표현. 개념 체계로 구성.
명칭	개념을 지칭하거나 의미. 개념에 기인.
정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설명.
총칭 관계	하위 개념의 내포가 상위 개념의 내포와 최소한 하나의 추가적인 제한적 특성을 포함할 때 개념 간에 존재하는 관계.
부분 관계	상위 개념이 전체를 표현하는 반면에 하위 개념이 전체의 일부분을 표현할 때 존재하는 관계.

개념은 문맥에서 구체화, 추상화되거나 상상된 객체는 사고적으로 관찰되고 개념화되며 그런 후에 명칭은 객체 자체보다는 개념으로 속성 지어진다.[18] 개념은 서로 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출된 용어의 관계성을 살펴 개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규정되지 않은 객체에 대해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개념화 과정과 정의, 체계 등의 단계와 방식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야의 특성상 전통적, 역사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된 용어를 대상으로 하기에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타 분야와 명칭이 같은 경우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복 용어 정비의 6가지 지침[19]을 참고하여 다루고자 한다[표 8].

표 8. 중복 용어 정비의 6가지 지침

1	용어 간 개념적 동일성을 우선 파악하되 분야별 의미 분화를 인정함.
2	기초과학, 모 학문의 용어, 분과 되기 이전 분야의 용어를 기준으로 함
3	용어의 원 발생지를 따름.
4	많은 분야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것, 분야 빈도수가 높은 것을 선호함.
5	무분별한 외래어 차용을 피하고 우리말 용어를 선호함.
6	어문 규정에 맞는 표기법을 따르되 굳어진 표현을 병기 할 수 있음.

4-1. '손상'의 개념 관계 정립 ; 총칭 개념 관계[20]

목조 건축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손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다. 그동안 특정 손상, 훼손, 열화, 풍화 등을 기술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각각의 용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거나 다른 번역어와 함께 사용되어 왔다. 앞서 살핀 규정에 따르면, 총칭 개념은 상위 개념이면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제한적 특성을 지닌 하위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발췌된 용어 가운데 '손상', '열화', '훼손', '풍화'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들 간의 개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체계 구성의 첫 단계로 삼고자 한다. 개념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로 사전적 정의 및 기타 용어집의 정의를 정리하고, 2단계로 보고서 내 사용을 분석하여 실무적 기능을 포함하여 정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후 과정은 ISO 704와 「KS X ISO 704 : 2022」의 내용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1) 개념화

해당 용어들은 건설·교통, 과학기술, 기계, 보건의료, 사회과학,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각각의 분야에서 용어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이 상이하다. 특정 분야의 정의는 기술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 맥락에 국한되어 있어, 문화유산 손상 개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손상 용어 이해에 참고할 수 있는 정의만 선별하였으며 기술표준 분류상 적합하지 않은 정의는 제외하였다. '손상', '훼손'은 특별히 건축 분야에서 다루는 정의가 있지 않았고, '열화', '풍화'는 건설/교통 분야의 정의를 볼 수 있었다[표 9]. [그림 8]은 1단계 과정에 의한 정리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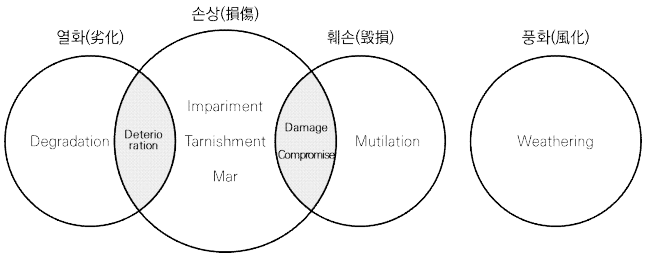


그림 8. 대역어 벤 다이어그램

손상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변하여 나빠짐'으로 인식된다. 이에 더해 '사용 환경에 의해', '물리적 성질에 영구 변화'의 문구와 함께 알아보면 사용 환경에 의해 색, 질량, 부피, 밀도 등의 물리적 성질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른다. 훼손은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훼손과 같이 친숙하게 쓰이며,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으로 인식된다. 어떠한 주체의 고의적인 원인에 의한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열화는 내/외부적 영향에 의해 기능, 내구성 등이 저하되는 현상을 이른다. 열화는 일반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표준국

17) 산업표준심의회, 『KS X ISO 704:2009 전문용어 연구 - 원칙 및 방법』, 서울, 산업표준심의회, 2007.

18) 앞의 글.

19)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권, 2011, 245-283쪽.

20) 『KS X ISO 704:2009 전문용어 연구 - 원칙 및 방법』 중 5.4 개념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5.4.2.2를 따름.

표 9. 1단계 - 손상/훼손/열화/풍화

용어	대분류	원어	정의문	대역어	출처
손상	국어사전	損傷	1. 명사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 3. 명사 품질이 변하여 나빠짐	-	표준국어대사전
	기계	-	사용 환경에 의해 물리적 성질에 영구 변화가 일어나 성질이 저하되는 것.	deterioration damage	표준 용어 사전 (국가기술표준원)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損傷	구조물이나 기계 본체 등에 지진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 단시간에 발생하는 균열 및 박리된 상태. 손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기는 노후에 의한 결함과는 다른 개념.	-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행정안전부)
훼손	국어사전	毁損	2. 명사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	-	표준국어대사전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毁損	시설물이나 기계·장비가 고의적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태.	-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행정안전부)
열화	국어사전	劣化	명사 전기 전자 절연체가 외부적인 영향이나 내부적인 영향에 따라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는 현상	-	표준국어대사전
	건설/교통	劣化	콘크리트에서 재료의 성질이나 물리적, 화학적, 기후적, 환경적 요인으로 시공 후에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내구성 저하 현상.	-	사회 재난 핵심 용어집(행정안전부)
	건설/교통	劣化	시설이나 차량이 사용 연수(使用年數)가 지나감에 따라 품질이나 기능의 저하를 면할 수 없는 것.	deterioration	철도 용어 사전 (국가철도공단)
	건설/교통	-	사용 중인 목재가 시간 경과와 함께 생물 및 비생물 열화 인자의 작용에 의해 물리 및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내구성이 저하되거나 외관이 손상되는 현상.	deterioration	표준 용어 사전(국가기술표준원)
풍화	국어사전	風化	1. 명사 지구 지표를 구성하는 암석이 햇빛, 공기, 물, 생물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로 파괴되거나 분해되는 일.	-	표준국어대사전
	건설/교통	-	색 및 재질(9.3.67)의 변화 또는 원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표면의 합성.	weathering	표준 용어 사전 (국가기술표준원)

어대사전에서 전기/전자 용어 풀이를 사용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콘크리트의 장기적 내구성 저하로서 설명하며,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사용 연수가 지나감에 따라'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열화는 시간의 흐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기능 저하 현상을 이른다. 풍화는 일반적으로 암석이 분해되는 일을 말한다. 사용상에 건축재료로 쓰이는 석재, 목재 등의 자연 재료가 분해되는 일을 이르기 때문에 대상을 수정하고, '표면에서', '점진적으로' 등의 문구로 구체화할 수 있다. [표 10]은 2단계 과정에 따라 정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표 10. 2단계(정의 초안) - 손상/훼손/열화/풍화

용어	원어	정의문	대역어
손상	損傷	사용 환경[21]에 의해 기능, 품질 등 재료의 물리적 성질의 영구 변화가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는 일 또는 그러한 현상.	deterioration damage
훼손	毁損	고의적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해 (헐거나 깨지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일 또는 그러한 현상.	damage
열화	劣化	재료의 성질과 같은 내부적 영향이나 물리적, 화학적, 기후적, 환경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영향에 의해 장기적,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기능 및 내구성이 저하되는 일 또는 그러한 현상.	deterioration
풍화	風化	재료의 표면에서 햇빛, 공기, 물, 생물 따위의 작용에 의해 점진적으로 파괴되거나 분해되는 일 또는 그러한 현상.	weathering

(2) 속성

4개 용어를 관통하는 속성은 기능, 품질 등 재료의 물리적 성질의 저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용어에서 물리적 성질 저하를 제외한 특성을 분석하여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손상은 '사용 환경에 의해', 훼손은 '고의적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인해', 열화는 '내/외부적 영향에 의해', '장기적, 점진적으로', 풍화는 '재료의 표면에서', '햇빛, 공기, 물, 생물 따위의 작용으로', '점진적으로'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통된 속성 외의 제한적 특성이 많은 개념은 총칭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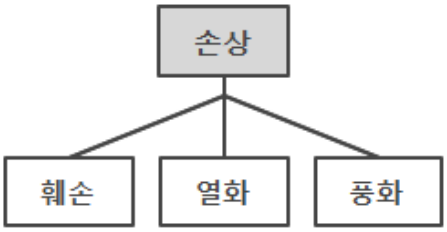


그림 9. 관계 모식도1

손상의 정의 중 '사용 환경'의 정의를 추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화학 분야에서 '도장 시스템이 사용 중 노출되는 조건'으로 설명된 것을 참고하여 '목조 건축문화유산'에서의 '사용환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재료가 사용 중 노출되는 조건은 물리적, 구조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적 노출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21)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물리적, 구조적,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적 노출 등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세 내용 본문)

손상은 특수 개념이 가진 요인에 관한 속성을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용어와 관계에서 총칭 개념으로 보아 [그림 9]와 같이 관계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3) 상세 분야

본 연구에서는 목조 문화유산의 손상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다루고 있다. 용어 간 관계 파악을 통해 손상이 훼손, 열화, 풍화의 총칭 개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용어는 손상의 의미를 내포하며 특정한 원인 등 제한적 특성을 갖는다. 기존에 4개 용어는 열화유형, 훼손 유형, 풍화 유형 등 유형, 원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형성된 개념 관계에 따라 목조 건축문화유산에서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용 환경에 의해 물리적 성질에 (영구) 변화가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는 일 또는 그러한 현상'은 손상으로 칭하기를 제안한다. 그에 따라 손상을 지칭하는 모든 용어를 '손상 용어'로 분류하여 차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2. '균열'의 개념 관계 정립: 하위 개념 관계[22)]

4-1에서 다룬 4개 용어는 총칭 관계로서 손상을 총칭 개념으로 하여 3가지 특수 개념(훼손, 열화, 풍화)이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췌된 균열, 갈램, 터짐과 같은 손상 용어는 특수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훼손, 열화, 풍화 세 용어와의 관계성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높은 '균열'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현상을 지칭하는 8개 용어의 속성을 파악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을 상위 개념으로 인지하고, 8개 용어 간 계층 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관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11]은 1단계 과정에 의한 정리 자료이다. 분석은 보고서 내에서 발췌한 '갈라짐', '갈램', '터짐', '균열', '할렬', '압괴'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성이 높은 2024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내 '윤할', '분할'을 포함하였다. '갈라짐', '갈램', '터짐'은 순우리말 표현이며, '균열', '할렬', '윤할', '분할'은 한자어이다. '압괴'는 그 어원과 의미가 확실하지 않았고, 표기에도 '압괴', '압괘', '압궤'가 혼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정의와 대역어가 분야별로 다른 경우가 많고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용어만으로는 건축문화유산의 손상을 명확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1) 개념화

[표 12]는 2단계 과정을 거쳐 작성된 정의이다. 각 용어의 명칭은 여러 분야의 용어 정의를 기반으로 실무적 의미를 반영하도록 수정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용어 체계 방안을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대표적 사례만 다루고자 한다.

표 11. 1단계 – '균열' 관련 손상 용어

용어	대분류	원어	정의문	대역어	출처
균열	사전	龜裂	1. 명사 거북의 등에 있는 무늬처럼 갈라져 터짐.	-	표준국어대사전
	건축	龜裂	모르타르, 콘크리트, 나무 등의 표면이 갈라져서 발생한 금. 주로, 재료의 강도 이상의 힘이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음.	crack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고건축	龜裂	① 목재가 건조되면서 거죽 면이나 내부에 생기는 갈라진 틈서리. 마구리 갈램 / 겉 갈램 / 심 갈램 / 테 갈램 등 ② 온도변화, 습윤, 건조, 충격 등에 의하여 갈라진 금이나 틈서리.	split, shake, check	한국건축대계
	재료	龜裂	인장을 받는 부재나 부재의 일부에 재료의 결함 또는 과도한 하중 등으로 인하여 원래 연결되어 있던 재료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작은 틈.	crack fracture	철도 용어 사전
터짐	사전	-	제재 후에 건조로 인하여 터져서 생긴 홈.		표준국어대사전
	기계	-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국부적인 파단에 의해 생기는 틈 또는 불연속.	crack, cracking	표준 용어 사전
	재료	-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단조품에 생긴 균열의 총칭.	crack	표준 용어 사전
압괴	건축	-	압축력에 의한 파괴의 총칭. 특히 콘크리트 휨 재의 압축 측 콘크리트의 파괴, 기둥의 축력에 의한 파괴, 또한 용기 구조에서 판 좌굴에 의한 파괴.	crushing, compression failure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기계	-	구조체의 용적이 원상태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과도한 소성 변형.		표준 용어 사전

22) 『KS X ISO 704:2009 전문용어 연구 – 원칙 및 방법』 중 5.4 개념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5.4.2.3를 따름.

표 12. 2단계(정의초안) - '균열' 등 관련 손상 용어

손상 용어	원어	정의	대역어
갈라짐	-	재료의 조직 사이가 벌어지는 것.	-
균열	龜裂	재료가 온도변화, 습윤, 건조, 충격 등에 의해 갈라지는 현상. 단, 목재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갈라짐은 제외하며, 미장 균열 등이 해당.	Crack
터짐	-	목부재가 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국부적인 파단에 의해 섬유 직각 방향으로 터지듯 갈라지는 현상.	Burst
압괴	-	목부재가 가구 구조의 부재 간에 맞닿는 부위에서 압축력에 의해 짓눌려 퍼지듯 갈라지는 현상.	Apgoe
갈램	-	목부재가 자체적 특성에 의해 겉면이나 내부에 생기는 갈라지는 현상.	Gallem
할렬	割裂	목부재가 자체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섬유 방향과 평행한 목재 조직이 갈라지는 현상. 횡 단면상에서는 방사 방향의 갈라짐으로 나타남.	Check
윤할	輪割	목부재가 자체적 특성에 의해 연륜을 따라 둥글게 발생하는 갈라지는 현상	Shake
분할	分割	목부재가 자체적 특성에 의해 부재의 끝부분에서 섬유 방향과 평행하게 갈라지는 현상. 횡단면의 할렬이 재면 쪽으로 진행하여 발생함.	Split

① 균열

균열은 사전상 재료가 갈라져 발생한 금이나 틈서리로서 정의되어 있다. 보고서 내에서 기둥, 마루, 공포와 같은 목재부터 벽체, 치받이, 당골막이와 같은 미장부분의 갈라지는 현상을 모두 이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균열은 건축용어사전에서 다루었듯이 다양한 재료의 갈라짐을 말한다.

하지만 목조 건축문화유산 분야에서 목재의 물성에 따라 갈라지는 현상은 균열 외 다른 동위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갈라지는 현상만을 '균열'로 지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균열은 '재료가 갈라진 금이나 틈서리'로 정의하되 '목재의 건조수축으로 인한 갈라짐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② 터짐

터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재 후에 건조로 인하여 터져서 생긴 홈으로 정의되어 있다. 표준용어사전 중 비파괴 검사 용어 부분에 따른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 '국부적인 파단' 정도가 될 것이다. 보고서 내 사용을 살펴보면 기둥 부재의 중앙부가 목재의 나이테 방향 혹은 섬유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 섬유 방향에 직각으로 일부가 터진 현상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터짐은 '제재 후에 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국부적인 파단에 의해 섬유 직각 방향으로 터지듯 갈라지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③ 압괴

압괴의 표기는 압괘, 압궤 등의 용어가 존재하나 최근 보고서 사용에서는 '압괴'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용어사전에서 '압괴'가 존재하므로 '압괴'로 통일하고자 한다. 압괴는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상하부가 특정한 형태로 갈라진 현상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 사용을 살펴보면 부재 간에 맞닿는 부위에 압축력에 의해 퍼지듯 갈라진 현상을 압괴로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둥이나 주두 등 하중이 집중되는 부재에서 발생하며, 특정 현상을 이르는 분야 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목조 건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압괴를 '가구 구조의 부재 간에 맞닿는 부위에서 목재가 압축력에 의해 짓눌려 퍼지듯 갈라진 현상'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의는 문헌 고찰을 통해 제안된 내용이며 실무자들의 의견, 전문가 집단의 이해, 언어학자의 견해 등 필수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표 12]와 [표 14]의 내용은 초안으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

(2) 속성

각각의 '손상'은 명확한 객체를 이르지 않고, 저마다 차이점을 가지며 양상 또한 다르다. 손상 용어 간의 관계를 총칭, 부분 등 하나의 관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모든 용어에 있어 '손상'은 분명한 속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손상'의 속성 아래 재료가 갈라지는 모든 현상을 일러 '갈라짐'으로만 표현하면 형태를 짐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분야 내에서 다뤄온 용어들은 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손상 용어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었지만,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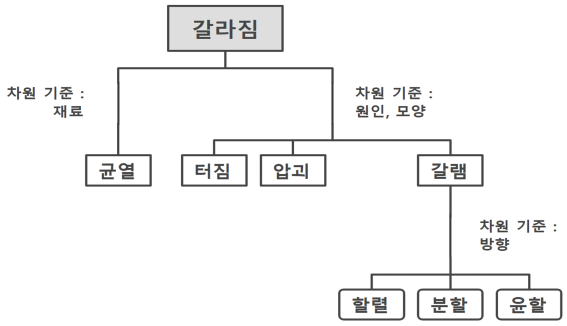


그림 10. 관계 모식도2

8개 용어 간에는 재료의 조직 사이가 벌어지는 '갈라짐'이라는 하나의 속성이 있다. 손상이 발생하는 재료에 따라 균열은 다른 손상과 구분되며 갈램, 터짐, 압괴는 갈라지는 원인과 모양새에 차이가 있다. 목재 특성에 의해 갈라지는 목재 갈라짐의 방향에 따라 할렬, 윤할, 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0].

4-3. 계층 구조 제안

‘손상’, ‘열화’, ‘훼손’, ‘풍화’, ‘갈라짐’ 간의 관계는 ‘손상’에 관한 모든 용어의 개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손상의 속성을 공유하는 열화, 훼손, 풍화와의 관계를 찾아냄으로써 손상을 상위 개념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갈라짐’의 속성을 가진 용어의 관계 파악은 ‘손상’ 개념의 하위에서 ‘균열’, ‘갈램’ 등의 명확성을 증가시킨다. 재료, 원인, 모양, 방향과 같은 제한적 특성은 용어의 사용에서 혼동을 줄여줄 것이다. 따라서 손상 용어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상·하위 개념 체계를 파악하여 계층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손상 진단을 위한 용어 표준 체계화를 위해 도출해낸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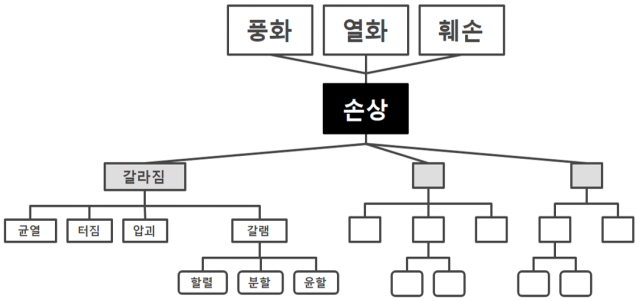


그림 11. 용어 계층(안) 구조도

‘풍화’, ‘열화’, ‘훼손’은 ‘갈램’, ‘균열’과 같이 그 용어 자체로 형상을 가지는 개념이 아니고 특정한 원인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는 모든 현상을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형상을 가진 그 외의 용어들을 가장 하위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손상 용어’로 칭할 수 있다. 그림은 ‘풍화’, ‘열화’, ‘훼손’이 ‘손상’의 하위 개념이거나 ‘손상 용어’의 상위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손상을 중점으로 풍화, 열화, 훼손은 그 하위 개념이며, ‘손상 용어’ 또한 ‘손상’으로서 총칭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연구 단계에서는 모든 용어의 개념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 실험적, 이론적 연구들이 발전하여 속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손상’은 ‘풍화’, ‘열화’, ‘훼손’을 총칭하는 총칭 개념으로서 ‘사용 환경에 의해 물리적 성질에 영구 변화가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는 일 또는 그러한 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손상 용어’는 나아가 ‘풍화’, ‘열화’, ‘훼손’의 하위 개념으로서 개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는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손상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념 정립 및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문화유산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동일한 손상 현상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며, 일부 용어는 유사한 개념을 지칭하면서도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보고서 내에서 약 80종류의 손상 용어가 총 8,010회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와 실무자 간의 소통을 저해하고, 데이터 분석과 축적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상 용어를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손상’, ‘열화’, ‘훼손’, ‘풍화’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손상’을 상위 개념으로 ‘열화’, ‘훼손’, ‘풍화’를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갈라짐’ 현상을 나타내는 하위 개념인 ‘균열’, ‘갈램’, ‘압괴’ 등의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하여 개념적 속성을 기준으로 상위 개념과의 계층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인과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중위 개념인 ‘훼손’, ‘열화’, ‘풍화’ 세 용어와 하위 개념의 계층 관계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자 간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화된 용어를 통해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문화유산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향상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보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용어는 용어의 임의 집합이어서는 안 되며, 주제 영역의 전문용어는 해당 영역의 지식 구조를 구성하는 개념에 기인한 명칭의 집합이다.[23] 개념은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규명되며 일관된 개념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목조 건축문화유산의 손상 용어는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사용하는 집단의 의사소통 속에서 개념 체계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는 역사적, 전통적 명맥을 지키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정은 손상 진단과 관련된 용어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용어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후속 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인 규명을 위한 실험적 연구, 개념 체계 정립을 통한 용어 정의 연구, 표준 용어집 발간 등이 요구된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구전되어 온 표현의 흔적을 반영하면서도 실무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정립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해 용

23) 산업표준심의회, 『KS X ISO 704:2009 전문용어 연구 – 원칙 및 방법』, 서울, 산업표준심의회, 2007.

어 체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병철·오명준, 「건설 용어의 국제 표준화 동향 조사 및 국내 용어 표준화 방향 제안」,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9, 143-151쪽.
2. 김하수, 「전문용어가 가지는 언어적 문제」, 『한국의학교육』, 8권, 1호, 1996. 17-20쪽. https://doi.org/10.3946/kjme.1996.8.1.17
3. 박은하·전진우, 「국내 건설·건축용어 연구의 동향 분석 및 표준화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5호, 2015, 620-629쪽. https://doi.org/10.5392/JKCA.2015.15.05.620
4. 서명수. 「1990년 전후 장기인 선생의 한국건축용어 정리 및 인식 - 「대한건축학회지」 內 '건축용어의 지스러기' 연속물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4, 241-244쪽.
5. 원훈일, 「건설기준 용어정의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연구」, 『대한토목학회 적기학술대회』, 2020, 469-470쪽.
6.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 의미학』, 35권, 2011, 245-283쪽.
7. 임현경, 「국내 공공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제언」, 『통역과 번역』, 17권, 2호, 2015, 27-49쪽.
8. 정상규, 「KS 건축 용어의 혼용 사례 및 표준화 방안」, 서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권, 12호, 2008, 141-148쪽.
9.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표준화 안내서』, 서울, 국립국어원, 2023.
10. 「언어정보나눔터 온용어」, 『국립국어원』, https://kli.korean.go.kr/term. 2025년 2월 20일 접속.
11.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main.do. 2025년 2월 20일 접속.
12. 『법제처』, https://www.moleg.go.kr. 2025년 2월 20일 접속.
13. 국가유산청, 『2022년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국보 보물 1』, 대전, 국가유산청, 2022.
14. 국가유산청, 『2022년 중점 관리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대전, 국가유산청, 2022.
15. 국가유산청, 『2022년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정기조사 연구보고서 Ⅰ』, 대전, 국가유산청, 2022.
16.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보존과학용어집』, 서울,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1.
17. 산업표준심의회, 『KS X ISO 704:2009 전문용어 연구 - 원칙 및 방법』, 서울, 산업표준심의회, 2007.
18. ICOMOS 한국위원회, 『석재 손상유형 도해 용어집(한국위원회 해석판)』, 서울, ICOMOS 한국위원회, 2014.
19.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Committee for Conservation (ICOM-CC), Terminology to Characterize the Conservation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15th edition, New Delhi: ICOM-CC, 2008.
2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SO 704:2022 - Terminology Work: Principles and Methods, 4th edition, Switzerland: ISO, 2022.